

어린이도서 수출현황으로 살펴본 한국의 어린이그림책

An Analysis of Korean Picture Books Focused on the Current Status of Children's Book Export

민 경 록 (Kyeong-Rok Min)*

목 차

- | | |
|--------------------------|---------------------------|
| 1. 서 론 | 4. 한국 어린이그림책의 해외 수출 현황 분석 |
| 2. 한국 어린이도서의 출판 현황 | 4.1 중국 |
| 2.1 국내 출판 | 4.2 일본 |
| 2.2 해외 수출 | 4.3 프랑스 |
| 3. 한국 어린이도서의 해외수출 지역별 현황 | 5. 결 론 |

초 록

한국의 어린이도서는 세계 출판시장에서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국외에 소개되고 있는 한국 어린이도서의 출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는 어린이 학습용의 지식정보 그림책,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한국적 정서와 전통 문화를 다룬 전통문화 그림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다양한 장르와 테마를 다룬 판타지 그림책과 어린이문학의 경계를 확장한 다양한 시도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도서관계는 이러한 현상을 기반으로 어린이그림책의 독서콘텐츠로의 역할은 물론 우수한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과 확대 방안 등을 검토·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Korean picture books have been recognized for their value as cultural products in the international publication markets. As results of analysis of publishing situation of Korea picture books that have been introduced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knowledge information picture books for education are mainly exported to China, and picture books of traditional culture and books about Korean emotions to Japan and France. Specially in France, fantasy picture books in various genres and themes, and picture books with various attempts expanded the boundary to children's literature have been introduced. Based on this situation, Korean Libraries can discuss and present their roles and extensional plans of picture books as reading contents and also fine cultural contents in other country.

키워드: 어린이문학도서, 한국 어린이도서 수출, 어린이도서, 문학콘텐츠, 한국 어린이그림책
Children's Literature Books, Exported Korean Children's Books, Children's Books,
Literature Contents, Korean Children's Picture Books

* 청주기적의도서관 관장,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rosemk@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18년 1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8년 1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2월 1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35-63, 2018.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1.035]

1. 서론

출판 산업은 문화콘텐츠의 원형이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¹⁾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시장의 급성장은 그 원천인 독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한다. 독서는 독자의 지적 능력을 신장시키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확대시키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며 나아가 인류 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개인적 측면이 아닌 사회적·국가적인 공공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성으로 인하여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출판산업분야는 2000년 이후 약간의 추이의 변화는 있었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²⁾ 저출산 등으로 인한 독서인구 감소와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기기 보급 등의 사회 환경적 변화 등이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 외에 출판 콘텐츠와 독자 요구의 다양성 등을 요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어린이도서는 1990년대를 전후로 하여 '세계명작동화', '세계위인전집' 등의 전집류와 학습용의 도서 중심에서 한국적 정서가 담긴 창작그림책 출간의 시작으로 세계 어린이그림책 분야에서 괄목할 성장을 보이고 있다.³⁾ 특히 한국의 어린이그림책은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어린이도서전에서 선정되거나 미국 뉴욕 타임즈가 매년 선정하고 있는 '올해의 우수그림책'에 선정되는 등 세계 출판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문학도서를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사례로, 권문희 작가의 『줄줄이 펜 호랑이』(사계절 2005)를 들 수 있다.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 전시된 이 책을 보고 스위스의 출판사가 불어로 출간하였으며, 프랑스 출판사·영화사와도 저작권 계약을 맺어 애니메이션으로 재창작되어 세계에 소개되고 있다(노컷뉴스 2015). 이처럼 문학작품을 원전으로 하여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미술, 게임, 캐릭터 등의 문화콘텐츠 생산으로 연결되는 문화산

1)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산업으로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2) 한국 출판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발행된 신간도서의 부수는 도합 45,213종 85,018,354부(학습참고서, 만화 포함)에 달하며, 이 중 어린이도서는 약 19.8%(5,572종 16,837,125부)에 이른다(대한출판문화협회 2016). 2000년 이후 어린이도서는 2011년에 출판의 약 34.4%(9,546종 37,705,148부)에 이른 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2> 한국 도서 출판 현황(2011~2015) 참조.
 3) 일본 동경준신여자대학의 오오타케 키요미는 이러한 배경으로 작가군, 독서관련 기관 및 단체, 독자층의 변화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정승각(1961~), 이억배(1960~), 권윤덕(1960~), 이영경(1966~) 등 현대 한국 어린이 그림책분야의 중핵을 차지하고 있는 작가들은 90년대에 데뷔하고 80년대에 대학시절을 보낸 세대로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을 경험하면서 민중문화운동, 지역운동, 교육운동 등의 표현활동을 익힌 작가들로 민중의 입장에서부터 추구된 민족문화나 전통문화가 표현된 작품 등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충분히 녹아든 다양한 작품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고 싶은 부모나 교사들의 바람은 양서보급의 시민운동, 어린이전문서점의 탄생, 그림책·어린이도서 전문출판사 등을 출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귀국하여 출판계에서 활동하면서 국제적인 경향과 수준을 파악하여 양서의 판권을 국제 규칙에 따라 정식으로 계약하고 이를 국내의 독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어린이도서의 기반을 착실하게 구축하게 되었다(오오타케 키요미 2005).

업 시대에 한국의 어린이문학콘텐츠를 세계에 알리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국내의 출판시장의 동향을 기반으로 한국 어린이도서의 해외 수출 현황과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에 소개되고 있는 한국 어린이도서의 지역별 분포와 장르 등의 현황을 기반으로 하여 각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어린이 문학작품의 성향을 파악하여, 어린이도서 출관계 혹은 도서관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출관계에서는 수출을 위한 마케팅에 활용하고, 도서관계에서는 우수한 문화콘텐츠로서의 한국의 어린이그림책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미디어를 연계하여 폭 넓고 풍부한 독서의 경험을 제공하면서 문화콘텐츠로의 확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에 소개되는 도서의 분석을 통하여 각 문화권의 어린이 문학관(文學觀), 어린이문학의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어린이 문학을 기반으로 한 문화교류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⁴⁾

본 연구를 위하여 2000~2012년까지의 어린이도서 수출 현황 분석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저작권 수출 DB'⁵⁾를 활용하였고, 2011~2015년까지의 도서저작권 수출 실적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통계를 활용하였다. 수출 도서의 장르

등의 내용 분석을 위하여서는 국제아동청소년협의회(KBBY)⁶⁾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 소개 어린이청소년 도서목록'을 참고하였다.⁷⁾

2. 한국 어린이도서의 출판 현황

해외에 수출되어 소개되고 있는 한국 어린이도서의 현황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한국 출판산업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에서 출간되는 어린이도서 중 번역서의 비율, 수출입의 편차 등을 통하여 어린이도서의 출판 환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국내 독자들의 성향과 국외 독자들의 독서요구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출판 통계와 해외에 수출되는 도서의 현황 분석을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참고하였다.

2.1 국내 출판

한국콘텐츠산업 통계 <표 1>에 따르면(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2015년 출판 산업의 매출액은 20조 5,098억원으로 콘텐츠산업의 20.4%

4) 번역을 통한 문학 교류는 한 나라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효과적으로 전파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한국 아동문학의 해외 번역 현황과 특성 연구: 영어권, 불어권, 일어권 사례를 중심으로/장영미. 돈암어문학, 25, 2012. 12, 37-74(40).

5) 2012년 이후부터는 자료 갱신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6) KBBY(Korean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에서는 2011년부터 한국어린이청소년도서 수출 현황에 관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이를 제공하고 있다. KBBY는 IBBY(The 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의 한국 지부로서 국내외 아동·청소년도서문화 관련자들이 아동·청소년도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7) 해외에 번역 출간된 한국 어린이문학도서의 내용 분석을 위하여 최근의 도서목록을 찾고자 하였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한 기관을 찾지 못하였다. 또한, 해외에 도서 저작권을 수출하는 방법은 출판사가 직접 수출을 하거나 에이전시를 통하는 등 다양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기 어렵다.

〈표 1〉 한국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2011~2015)

(단위: 백 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	연평균 증감률 (%)
출판	21,244,581	21,097,287	20,799,789	20,586,789	20,509,764	20.4	△0.4	△0.9
만화	751,691	758,525	797,649	854,837	919,408	0.9	7.6	5.2
음악	3,817,460	3,994,925	4,277,164	4,606,882	4,975,196	5.0	8.0	6.8
게임	8,804,740	9,752,538	9,719,683	9,970,621	10,722,284	10.7	7.5	5.0
영화	3,773,236	4,404,818	4,664,748	4,565,106	5,112,219	5.1	12.0	7.9
애니메이션	528,551	521,005	520,510	560,248	610,175	0.6	8.9	3.7
방송	12,752,484	14,182,479	14,940,939	15,774,634	16,462,982	16.4	4.4	6.6
광고	12,172,681	12,483,803	13,356,360	13,737,020	14,439,925	14.4	5.1	4.4
캐릭터	7,209,583	7,517,639	8,306,812	9,052,700	10,080,701	10.0	11.4	8.7
지식정보	9,045,708	9,529,478	10,388,176	11,343,642	12,342,103	12.3	8.8	8.1
콘텐츠솔루션	2,867,171	3,029,140	3,437,787	3,894,748	4,311,563	4.3	10.7	10.7
합계	82,967,886	87,271,637	91,209,617	94,947,227	100,486,320	100.0	5.8	4.9

를 차지하여 여타의 콘텐츠 산업보다 월등한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출판 산업은 높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유일하게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콘텐츠산업에서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영화(12%), 그 다음으로 캐릭터(11.4%), 콘텐츠솔루션(10.7%), 애니메이션(8.9%), 지식정보(8.8%), 음악(8.0%), 만화(7.6%), 게임(7.5%), 광고(5.1%), 방송(4.4%) 등의 순으로 출판 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콘텐츠솔루션 부분은 2011년 이래 연평균 10.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출판 산업과는 대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출판 산업을 제외한 여타의 콘텐츠분야는 '문학 작품'을 원전으로 확장하여 창작될 수 있는 분야이다.

출판 산업분야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매해 실시되는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독서 지수의 감소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⁸⁾ 또한, 출판 산업과 달리 여타 콘텐츠분야의 매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미디어의 다양화로 인한 독서율의 감소 현상에 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독서 현장에서 전통적인 독서매체인 도서와 다른 미디어를 통한 독서콘텐츠의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도서관은 다양한 자료와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새로운 지식을 배

8)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5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간 1권 이상의 일반도서(교과서, 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를 제외한 종이책)를 읽은 사람들의 비율, 즉 연평균 독서율은 성인 65.3%, 학생 94.9%로 이는 2013년에 비해 성인은 6.1%, 학생은 1.1%가 감소한 수치이다. 학생 독서율은 아침독서운동 등의 여파로 성인에 비해 높은 편이다(출처:2017.07.10.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4885).

우는 과정 및 도서 등의 기타 매체와 친숙해지는 과정을 지원할 특별한 책임(IFLA/UNESCO 2001)이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독서환경 조성 과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서는 출판 콘텐츠의 다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출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출판통계자료 <표 2>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신간 발행 부수는 전년 대비 9.7% 감소하였으며, 2011년 이래 가장 낮은 출판율을 보이고 있다(대한출판문화협회 2016).

특히 어린이도서의 경우는 전년 대비 35.7% 감소하였고, 2011년과 비교하면 55.3% 감소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출판 산업분야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더불어 어린이도서 출판 분야는 그 감소의 파장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론에서 신간 발행 부수를 기준으

로 하여 어린이도서가 출판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2011년 34.4%, 2012년 30.5%, 2013년 28.7%, 2014년 27.8%, 2015년 19.8%)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어린이 독서는 평생의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이러한 결과는 독서진흥정책분야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국내 출판 산업분야에서 차지하는 번역도서의 출판 현황은 <표 3>과 같다(대한출판문화협회 2016).

출판계 전체의 감소 현상은 번역도서의 출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간 발행 종수에서 번역도서의 점유율은 2015년 21.5%로, 전년대비 0.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 일시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한국 도서 출판 현황(2011~2015)

(단위: 종, 부, %)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발행도서	44,036종 (109,550,227부)	39,767종 (86,906,643부)	43,146종 (86,513,472부)	47,589종 (94,165,930부)	45,213종 (85,018,354부)
어린이 도서	9,546종 (37,705,148부)	7,495종 (26,537,234부)	7,424종 (24,862,658부)	7,269종 (26,166,569부)	5,572종 (16,837,125부)
비중	34.4	30.5	28.7	27.8	19.8

<표 3> 한국의 번역도서 출판 현황(2011~2015)

(단위: 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도서 발행 종수	44,036	39,767	43,146	47,589	45,213
번역종수	11,648	10,224	9,301	10,396	9,714
구성비(%)	26.4	25.7	21.5	21.8	21.5
어린이도서 발행종수	9,546	7,495	7,424	7,269	5,572
어린이도서 번역종수	2,545	2,002	1,749	1,716	1,374
구성비(%)	26.7	26.7	23.5	23.6	24.6

어린이도서 출판에서 번역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어린이도서 신간 중 번역도서의 점유율은 2011년(26.7%)부터 2015년(24.6%)까지 전체 번역출판 현황과 비교하면 완만하지만 꾸준히 감소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 간행되고 있는 번역도서에서 어린이도서의 번역출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21.8%, 2012년 19.6%, 2013년 18.8%, 2014년 16.5%, 2015년 14.1%로 전체 번역도서의 감소율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린이도서 출판에 있어 국내 작가들의 활발한 작품 활동의 측면으로 볼 수도 있으며, 또한 어린이도서 출판의 감소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 소개되고 있는 어린이번역도서의 국가별 분포 현황 <표 4>를 살펴보면(대한출판문화협회2016), 2015년을 기준으로 미국 406종, 영국

217종, 일본 205종, 프랑스 191종, 중국 53종, 독일 54종, 북중미 44종, 유럽 39종, 동유럽 38종, 이탈리아 34종, 기타 93종에 이른다. 한국에 번역되어 소개되는 해외 어린이도서의 국가별 현황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이 전체의 45.3%로 월등하게 높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어린이도서관장서 중 주제별 구성에 있어서 영미문학권의 도서가 여타 문화권의 도서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⁹⁾ 아시아권에서의 분포율은 일본에 이어 중국이 다음 순위이지만 수량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어린이번역도서의 15.0%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3.9%로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의 어린이도서가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 상술한 바를 정리하면, 한국 콘텐츠산업에서 출판 산업은 20.4%의 분포율로 여타의

<표 4> 한국의 주요 국가별 어린이도서 번역출판 현황(2011~2015)

분야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총 발행 종수	9,546	7,495	7,424	7,269	5,572	37,306
번역 종수	2,545	2,002	1,749	1,716	1,374	9,386
번역서 비중(%)	26.7	26.7	24	24	24.6	25.1
일본	560	362	211	271	205	1,609
미국	721	631	512	519	406	2,789
영국	404	290	343	264	217	1,518
프랑스	204	264	213	227	191	1,099
독일	211	95	102	85	54	547
중국	12	34	18	54	53	171
동유럽	64	47	53	23	38	225
러시아	16	84	8	9	-	117
이탈리아	78	49	43	53	34	257
북·중미	47	36	62	49	44	238
유럽	47	36	37	42	39	201
기타	181	74	147	120	93	615

9) 청주기적의도서관 어린이도서 문학류의 구성 비율은(2017.9. 기준) 한국문학(41%), 영미문학(26.1%), 기타(32.9%).

산업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2011년 이래 유일하게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간 도서의 출판량과 독서지수의 감소 등의 여러 요인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 도서는 출판의 감소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출판 부수는 전년 대비 9.7%의 감소율을 보인데 반하여 어린이도서는 35.7%의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어린이의 독서율이 성인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새로운 미디어가 꾸준히 등장하면서 감소의 폭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어린이들의 독서진작을 위하여서는 장르, 테마, 소재 등의 다양한 독서콘텐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린이번역도서의 경우는 2011년 이래 평균적으로 어린이도서 발행 종수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어린이도서 출판 분야에서의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번역도서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의 어린이도서가 45.3%로 절반 가까이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순으로 번역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순위는 1, 2위이지만 수량면에 있어서는 약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린이번역도서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의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2 해외 수출

한국 콘텐츠산업의 해외 수출액 현황 <표 5>

에 의하면(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출판 산업은 2015년에 2억 2,274만달러로 콘텐츠산업 분야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9.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1년 이래 연평균 5.8%의 감소율로 콘텐츠산업의 매출액 현황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소율은 수출액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출판 산업 외에 콘텐츠산업 수출에서 2011년 이래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광고로 연평균 1.9% 감소하였으며, 여타의 분야는 전반적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음악 분야는 연평균 18.1%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K-Pop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콘텐츠산업분야에서 해외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게임으로 5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이래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출판계와는 전혀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앞 절에서 다루었던 국내 출판 현황과 <표 5>를 통하여 콘텐츠산업에서 출판 시장이 수출과 수입에서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 출판 산업의 수출입액을 비교해 보면 <표 6>과 같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2013년 일시적으로 수출액이 초과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앞 절에서 국내 소개되고 있는 번역도서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출판계에 있어서 2011년 이래 평균적으로 23.4%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이다.¹⁰⁾ 이처럼 출판 산업은

10) 한국의 어린이도서 저작권이 해외 수출되는 비율은 수입에 비하여 미비한 편이지만, 국내 도서출판의 여타의 분야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한국 콘텐츠산업 수출액 현황(2011~2015)

(단위: 천 달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	연평균 증감률 (%)
출판	283,439	245,154	291,863	247,268	222,736	3.9	△9.9	△5.8
만화	17,213	17,105	20,982	25,562	29,354	0.5	14.8	14.3
음악	196,113	235,097	277,328	335,650	381,023	6.7	13.5	18.1
게임	2,378,078	2,638,916	2,715,400	2,973,834	3,214,627	56.8	8.1	7.8
영화	15,829	20,175	37,071	26,380	29,374	0.5	11.3	16.7
애니메이션	115,941	112,542	109,845	115,652	126,570	2.2	9.4	2.2
방송	222,372	233,821	309,399	336,019	320,434	5.7	△4.6	9.6
광고	102,224	97,492	102,881	76,407	94,508	1.7	23.7	△1.9
캐릭터	392,266	416,454	446,219	489,234	551,456	9.7	12.7	8.9
지식정보	432,256	444,837	456,911	479,653	515,703	9.1	7.5	4.5
콘텐츠솔루션	146,281	149,912	155,201	167,860	175,583	3.1	4.6	4.7
합계	4,302,012	1,644,505	4,923,100	5,273,519	5,661,368	100.0	7.4	7.1

〈표 6〉 한국 출판 산업 수출입액 현황(2011~2015)

(단위: 천 달러)

년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출	283,439	245,154	291,863	247,268	222,736
수 입	351,604	314,305	254,399	319,219	277,329
수출입차액	▽68,165	▽69,151	37,464	▽71,951	▽54,593

국내·외 전반에 걸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독서분야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도서관계에서는 독서 진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학작품을 원전으로 하는 독서콘텐츠의 확대 방안 등에 관하여서도 다각적인 측면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사례가 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인 수출 도서의 현황 및 내용 분석 등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한국 출판 산업 해외 수출의 구체적인 현황 분석을 위하여 최근 5년간 도서저작권의 분야별 수출 실적에 따른 추이를 분석하였다(〈표

7〉 한국출판산업진흥원 2016). 2015년 도서저작권의 수출 건수는 총 1,976건으로 2012년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3년에는 295개 출판사에서 1,217종(2,171건)의 저작권 수출이 이루어졌고, 2014년에는 314개 출판사에서 1,247종(2,151건)이, 2015년에는 349개 출판사에서 1,531종(1,976건)의 저작권 수출이 이루어져 최근 3년간 연평균 1,332종, 2,099건의 도서저작권 수출 실적을 거두었다. 분야별로 문학, 학습참고서 등은 적으나마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어린이도서와 만화분야는 여전히 전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도서는 2011~2015년간 도서저작권 수출의

〈표 7〉 한국의 도서저작권 수출 추이(2011~2015)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총류	142	92	83	133	84	534
철학	0	0	0	13	1	14
종교	0	0	0	0	1	1
인문과학	0	0	0	0	0	0
사회과학	57	100	134	83	41	415
자연과학	14	35	4	22	86	161
기술과학	22	131	139	29	91	412
예술	24	1	1	37	41	104
언어	40	58	34	149	48	329
문학	115	145	458	119	99	936
역사	0	2	2	58	4	66
학습참고서	203	74	25	45	88	435
어린이	759	492	719	872	1,062	3,904
만화	211	1,074	872	591	330	3,078
총계	1,587	2,204	2,171	2,151	1,976	10,089

38.7%, 만화는 30.5%로 여타의 분야와 비교하여 출판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도서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1,062건으로 전년대비 21.8% 증가하였다. 출판 산업 전반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이는 것과 달리 어린이도서의 수출 현황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서론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세계 출판시장에서 한국 그림책 등에 관한 관심과 국제적인 어린이도서전에서의 수상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도서관 현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한국 어린이도서의 서지정보 제공과 더불어 내용 분석을 통하여 독서지도와 독서지원서비스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상술한 바를 정리하면, 2011년 이래 한국의 도서저작권 수출 건수에 있어 어린이도서는 3,90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만화(3,078건), 문학(936건)의 순이다. 어린이

도서와 만화의 경우 추이 변화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작권 수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은 2014년과 비교하여 만화와 어학, 문학 분야는 감소한 반면, 어린이와 과학(자연과학, 기술과학)분야는 증가하였다. 이에 도서저작권 수출에서 어린이도서와 만화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문학 분야가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린이도서는 2013년부터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도서저작권 수출의 53.7%(1,062건)를 어린이도서가 차지하고 있어 여타의 분야와 비교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수출 현황은 전년 대비 21.8% 증가하였다. 따라서 도서저작권 수출 건수 기준으로 약간의 감소 및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어린이도서의 저작권 수출 건수 기준으로는 해마다 꾸준히

준히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도서가 한국 출판 산업의 해외 수출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 어린이도서의 해외수출 지역별 현황

이번 절에서는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 도서 전체의 지역별 분포를 통하여 세계 출판 시장에서의 한국 출판의 흐름을 분석한 후에 한국 어린이도서의 지역별 해외수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출판 산업의 해외 수출입 현황 <표 8>¹¹⁾을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북미(27.0%), 일본(24.7%), 중국(15.7%), 기타(15.3%), 동남아(11.7%), 유럽(5.6%)의 순으로 북미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동서양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시아권이 약 50% 이상으로 서양보다는 동양의 비중이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수입액은 북미(35.3%),

일본(20.2%), 유럽(19.9%), 중국(17.1%), 동남아시아(5.7%), 기타(1.8%)의 순으로, 수출과 달리 수입에서는 서양이 동양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수출에 있어서는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동양권이 높은 반면에 수입에 있어서는 서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북미권은 수출입액에서 여타의 지역에 비하여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는 수출액이 수입액을 크게 앞지르고 있어, 앞 절(2.1)에서 다루었던 국내 출판계의 어린이번역도서의 지역별 분포도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한국 어린이도서의 저작권 수출이 활발해진 2013년부터 어린이도서 저작권 수출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 도서저작권 수출의 지역별 분포 <표 9>를 보면, 여타의 지역에 비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저작권 수출 의존도가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출판물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인근 아시아 지역에 국내 출판사와 저작권 수출

<표 8> 한국 출판 산업 지역별 수출입액 현황(2011~2015)

(단위: 천 달러)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중국	33,693	59,055	37,508	50,234	45,430	40,093	38,541	54,725	34,888	47,504
일본	62,790	56,921	61,289	57,303	74,560	48,624	60,584	64,258	55,026	55,913
동남아	29,810	24,732	29,418	22,230	35,314	17,151	29,457	18,452	26,123	15,920
북미	90,127	125,311	66,192	111,602	76,933	92,224	66,189	112,433	60,042	98,003
유럽	21,557	81,877	16,180	67,518	19,520	53,539	13,956	63,748	12,447	55,131
기타	45,462	3,708	34,567	5,418	40,106	2,767	38,541	5,603	34,210	4,858
합계	483,439	351,604	245,154	314,305	291,863	254,399	247,268	319,219	222,736	277,329

11) <표 8>~<표 12>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5 콘텐츠산업통계』를 참고하였음.

〈표 9〉 한국 도서의 저작권 수출 지역별 분포(2013~2015)

(단위: 건, %)

구분	아시아	유럽	북미	중동	남미	아프리카	합계
2013년	1,964	76	68	15	37	11	2,171
2014년	1,806	252	71	4	18	0	2,151
2015년	1,632	107	116	88	33	0	1,976
건수	5,402	435	255	107	88	11	6,298
비중(%)	85.8	6.9	4.0	1.7	1.4	0.2	100

에이전시의 해외 저작권 수출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진 도서저작권 수출은 5,402건으로 전체 6,298건 중의 85.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되어지는 지역별 분포도와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로, 한국 도서의 저작권 수출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이 매우 중요한 출판 시장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매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출판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원인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여타 지역의 도서저작권 수출 분포를 보면 유럽 435건(6.9%), 북미 255건(4.0%), 중동 107건(1.7%), 남미 88건(1.4%), 아프리카 11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의 경우 2013년 일시적으로 도서저작권 수출이 있었으나, 2014년 이후로는 실적이 전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도서저작권 수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북미권은 여타의 지역과 달리 지속

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향후 도서관계 등에서는 수출 도서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하여 한국의 도서를 알릴 수 있는 독서콘텐츠 개발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 어린이도서 저작권 수출의 주를 이루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별 도서저작권의 수출 추이 〈표 10〉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아시아 2,345건(97.3%), 유럽 64건(2.7%)으로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한국 도서 저작권 수출의 전체적인 비율과 비교하면 어린이도서가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분야별 도서저작권 수출 추이' (〈표 7〉 참조)에서 '학습참고서' 분야의 분포가 높았던 것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에 수출되어지는 어린이도서의 장르가 교육, 학습과 관련된 분야가 많을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높은 어린이 교육열을 통하여서도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10〉 한국 어린이도서의 저작권 수출 분포(2013~2015)

(단위: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비중(%)
아시아	716	800	829	2,345	97.3
유럽	3	26	35	64	2.7
합계	719	826	864	2,409	100

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어린이도서의 저작권 수출 추이는 <표 11>과 같다. 중국이 월등하게 높은 비율(64.4%)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12.7%), 대만(9.2%), 말레이시아(5.7%), 인도네시아(5.6%), 베트남(1.7%), 홍콩(0.3%), 일본·몽골(0.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은 아직 실적이 없는 상태이다.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는 지역별 분포와 비교해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일본 205종, 중국 53종, 대만 28종으로 중국과 대만은 수출이 수입보다 높은 반면에 일본은 전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권 중에서는 일본의 어린이도서를 가장 많이 들여와 소개하고 있음에도, 수출되는 건수는 많지 않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출 건수는 지

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다음으로 어린이도서의 저작권 수출 건수가 많은 국가는 태국으로, 201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67.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2014년에 주춤했지만 2015년에 105건으로 전년대비 118.8%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여타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수출되는 비중이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홍콩, 몽골 등에도 수출되어 한국의 어린이도서가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으로 수출되는 어린이도서의 저작권 추이는 <표 12>와 같다.

유럽에서는 폴란드(28.1%)에 가장 많은 한국 어린이도서의 저작권이 수출되고 있으며,

<표 11> 아시아 주요 국가의 한국 어린이도서 저작권 수출 분포 (2013~2015)

(단위: 건, %)

연도	중국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필리핀	홍콩	몽골	캄보디아	싱가포르	
2013	531	81	62	5	11	24	2	0	0	0	0	0	716
2014	509	81	48	73	20	67	2	0	0	0	0	0	800
2015	470	136	105	53	9	42	2	0	7	5	0	0	829
건수	1,510	298	215	131	40	133	6	0	7	5	0	0	2,345
비중	64.4	12.7	9.2	5.6	1.7	5.7	0.2	0	0.3	0.2	0	0	100

<표 12> 유럽 지역의 한국 어린이도서 저작권 수출 분포 (2013~2015)

(단위: 건, %)

연도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폴란드	영국	헝가리	스페인	스웨덴	이스라엘	그리스	
2013	2	0	0	0	0	0	0	1	0	0	0	3
2014	8	3	1	3	9	0	0	2	0	0	0	26
2015	5	2	1	0	9	1	12	2	1	1	1	35
건수	15	5	2	3	18	1	12	5	1	1	1	64
비중	23.4	7.8	3.1	4.7	28.1	1.6	18.7	7.8	1.6	1.6	1.6	100

다음으로 프랑스(23.4%), 헝가리(18.7%), 이탈리아·스페인(7.8%), 독일(4.7%), 스위스(3.1%), 영국·스웨덴·이스라엘·그리스(1.6%)의 순이다. 폴란드와 프랑스가 전체의 절반 이상(51.5%)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 소개되는 어린이번역도서의 지역별 분포(〈표 4〉 참조)에서 영국 217종, 프랑스 191종 등의 수치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출입의 격차는 유럽이 아시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는 지속적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영국, 헝가리, 이스라엘, 스웨덴, 그리스 등은 최근에 어린이도서저작권 수출이 비록 적은 건수일지라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계 등에서는 여타의 유럽 국가들에 한국 어린이도서를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 어린이도서의 저작권 수출입 현황은 첫째, 2011년 이래 국내 출판계에서 어린이번역도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수출 현황은 2012년 잠시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수량으로 비교하면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되는 도서의 비율이 훨씬 높지만 수출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년에 새로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의 현상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진다. 둘째, 한국의 어린이도서 저작권 수출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지역과 유럽을 비교하였을 때 아시아지역이 97.3%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지역 중에서도 중국, 태국, 대만 등에 치중되어 있다. 일본, 홍콩 등을 비롯한 여타의 지역에 수출된 출판물은 1% 미만에

불과하므로, 향후 더욱 다양한 국가에 한국의 어린이도서를 소개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어린이도서 수출 지역에 있어서 수량적으로는 미진한 편이지만 점진적으로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다종의 도서를 수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계에서는 위와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국외에 소개된 한국 어린이도서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어린이들의 독서 성향과 비교 검토하여 독서와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독서 선호도 등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른 문화권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문화콘텐츠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 어린이그림책의 해외 수출 현황 분석

앞(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에 소개(2011~2015년)되고 있는 한국 어린이도서는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어린이그림책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여타 문화권에서의 어린이문학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수출 대상국 중 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중국, 세계적으로 어린이문학 등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일본, 어린이문학과 그림책 등에서 많은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 등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 어린이그림책을 중심으로 내용, 테마, 장르 등의 성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도서의 통계 자료와 각 도서에 관한 정확한 서지정보의 입수

에 한계가 있었다. 출판 산업의 해외 수출방법에는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기타 등이 있는데, 전자는 해외 전시회 및 행사참여, 해외 유통사 접촉, 온라인 해외 판매, 해외법인 활용 등이 있으며, 후자는 국내 및 해외 에이전트 활용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중 국내 에이전트 활용이 가장 큰 비중(47.4%)(한국콘텐츠진흥원 2017)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외로 수출되는 도서의 저작권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그 수출의 방법이 다양하게 진행되다 보니 정확한 서지목록의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국제 아동청소년협의회(KBBY)에서 온라인 정보로 제공하고 있는 해외소개 어린이도서의 서지목록¹²⁾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문학번역원¹³⁾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 문학번역서목록'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는 서지정보를 보완하여 수출된 한국 어린이그림책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¹⁴⁾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 어린이청소년도서 중 KBBY의 홈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출도서목록에 따르면 국내 20여 개의 출판사가 23개

국에 123종 279책¹⁵⁾을 수출하고 있다.¹⁶⁾ 출판사별로 살펴보면, 삼성출판사가 가장 많은 어린이 도서(12종 121책)를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 국가는 대만,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홍콩 등으로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보림출판사는 수출되고 있는 어린이도서의 책수(22종 22책)는 적지만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한국의 어린이도서를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림출판사를 비롯한 여타의 출판사들은 10종 미만의 어린이도서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출판사는 특정의 지역(중국)에 많은 도서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보림출판사의 『엄마를 잠깐 잃어버렸어요』(김상미 2009)¹⁷⁾는 10개국에 소개되어 가장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되었다. 길벗어린이의 『술이의 추석 이야기』(이억배 1995)는 6개국(중국, 일본, 대만, 미국, 프랑스, 스위스)의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외에 문학동네의 『고양이 학교』(김진경 2001)는 판타지 시리즈물로 5개국(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프랑스)으로 수출되었다.

12) KBBY(http://www.kbby.org/bbs/content.php?co_id=ibby02) [cited 2017. 6. 29]

13) 한국문학 번역가들과 한국문학을 출간하는 해외출판사를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여 세계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2001년 (재)한국문학번역금과 문화예술진흥원의 해외번역사업을 통합하여 (재)한국문학번역원으로 발족하였다.

14) KBBY와 한국문학번역원은 저작권 등의 공식적인 도서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해외에 수출되는 한국의 어린이청소년도서의 완벽한 데이터는 아니다.

15) 도서의 단위는 단행본 1권 1종(복본은 제외), 시리즈는 '1종'으로 처리. KBBY의 홈페이지 '해외에 수출 어린이 청소년도서목록'에 의하면 126종 282책으로 목록이 제공되고 있는 바, 각 서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성출판사에서 출간된 도서 중 3종 3책이 요리책, 육아서 등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도서로 조사되어 이를 제외하였다. 수출 도서의 상세한 서지정보는 KBBY의 홈페이지 참고.

16) 2016 출판산업 통계의 '도서저작권 수출통계'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도서의 저작권 수출의 건수는 2013년 719건(전체 2,171건), 2014년 872건(전체 2,151건), 2015년 1,062건(전체 1,976건)으로 도합 2,653건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하고 있어, 도서저작권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엄마를 잠깐 잃어버렸어요』는 잠을 자다 길을 잃은 아기 부엉이가 엄마를 찾아가는 여정을 유머러스하게 그린 2~3세용 보드북 형식의 그림책으로, 보림출판사가 외국 작가(크리스 호튼)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만든 첫 번째 그림책이다. <출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2017.10.07>

〈표 13〉 출판사별 한국 어린이도서의 해외수출 현황

출판사	수출 대상국
삼성출판사	대만,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홍콩 (4개국)
보림출판사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독일,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18개국)
길벗어린이	대만, 미국, 스위스, 일본, 중국, 프랑스, 프랑스어권 (7개국)
비룡소	대만,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중국, 태국, 프랑스 (8개국)
보리	미국, 일본, 중국 (3개국)
문학동네	대만, 베트남, 일본, 중국, 프랑스 (5개국)
계림북스	네덜란드, 중국, 태국 (3개국)
다림	대만, 스위스, 일본, 프랑스 (4개국)
뜨인돌	중국, 태국 (2개국)
국민서관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4개국)
사파리	대만, 일본, 중국, 태국 (4개국)
느림보	프랑스, 홍콩 (2개국)
바람의아이들	독일, 미국, 프랑스 (3개국)
다섯수레	중국 (1개국)
문학과지성사	독일, 프랑스 (2개국)
글로연	대만 (1개국)
낮은산	일본 (1개국)
마루별	프랑스 (1개국)
밝은미래	인도네시아 (1개국)
삼성당	중국 (1개국)

한국 어린이도서의 해외 수출 상황을 대상국의 분포율에 따라 나누어 보면, 중국이 35.6%로 가장 많은 어린이도서 수출 대상국이며, 그 다음으로 일본(12.7%), 프랑스(11.6%), 태국(11%), 대만(7.9%), 인도네시아(4.5%), 홍콩(3.7%), 미국·스위스(2.5%), 독일·베트남(1.4%), 스페인(1.1%), 네덜란드·멕시코·이탈리아(0.6%), 뉴질랜드·벨기에·스웨덴·아일랜드·영국·캐나다·프랑스어권·호주(각0.3%) 등에 이른다. 수출 대상국 중 중국과 일본이 전체의 48.3%로, 여타의 아시아권을 포함

하면 아시아가 약 77.6%에 이른다. 아시아권을 제외한 여타의 국가로 수출하는 비율은 22.4%로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아시아권을 제외하면 프랑스가 11.6%(31종 41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의 유럽권은 거의 1% 미만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에 번역되어 소개되어지는 어린이번역도서의 현황과 상이한 결과이다. 한국에 소개된 외국의 어린이번역도서는 영미문학이 전체의 45.3%(423종)에 이르며, 일본은 15%, 중국은 3.9% 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¹⁸⁾

18) 2015년 번역서 출판 현황에 따르면, 전체 번역서(9,714종)에서 어린이도서 번역서가 14.1%(1,374종)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406종), 영국(217종), 일본(205종), 프랑스(191종), 독일(54종), 중국(53종), 북중미(44종), 유럽(39종), 이탈리아(34종), 스페인(25종) 등의 국가별 비중도를 알 수 있다(참고, www.kpa21.or.kr).

다음으로 지역별 어린이도서의 해외 수출 현황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픽션류와 논픽션류로 나누어 보았다. 한국 어린이도서가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중국은 픽션류 10.3%, 논픽션류 89.7%로 논픽션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픽션류가 93.3%, 프랑스는 픽션류가 100%로 중국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픽션류와 비교하여 논픽션류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국가로는 중국 89.7%, 태국 97.4%, 홍콩 77%, 인도네시아 93.8% 등이며, 픽션류만을 수입한 국가로는 프랑스, 호주,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베트남, 미국, 멕시코, 독일, 뉴질랜드 등이다. 여타의 국가는 50% 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뉴질랜드, 벨기에, 스웨덴 등은 1종의 도서만이 수출되어 41종 중 41종이 픽션류인 프랑스와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있지만 비율로 비교한 결과이다. 따라서 아시아권에서는 논픽션류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반면에 서양권에서는 픽션류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해외 수출 어린이도서 중 가장 많은 도서가 수출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프랑스를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도서의 성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KBBY의 목록에서 누락된 도서의 정보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제공하는 목

록에서 추가하여 비교하여 정리하였다.¹⁹⁾

4.1 중국

한국 어린이도서 저작권의 해외 수출 분포(〈표 10〉 참조) 및 아시아 주요 국가의 수출 분포(〈표 11〉 참조)에 따르면, 유럽(2.7%)에 비하여 아시아(97.3%)에 월등하게 많은 한국의 어린이도서 저작권을 수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64.4%)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는 중국의 어린이도서는 2015년을 기준으로 어린이 번역도서의 3.9%, 일본은 15%(〈표 4〉 참조)로, 수출입의 현황이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²⁰⁾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한국 어린이도서는 35종 126권의 도서를 11개 출판사에서 수출하고 있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픽션 10.3%(13권), 논픽션 89.7%(113권)로 논픽션류를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픽션류의 도서는 과학동화, 철학동화, 교양(인성) 동화 등과 같이 학습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학습도서와 교구, 스티커 북 등과 같은 교구·장난감 형태의 토이북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물은 어디서 왔을까?』(신동경 2011)는 지식정보그림책으로 '물'의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태의 변화, 물의 활용 등

19) 해외에 수출되는 한국어린이도서의 목록은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게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세한 목록은 KBBY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고하기를 바란다.

20) 중국어권의 현대 아동문학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번역, 소개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즉 1990년대 냉전이테올로기 종식과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 간 문학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문학은 관심밖에 있다가 2000년대 한류 열풍이 더해지면서 교류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새움에서 펴낸 『빨간기와』(차오원취안 曹文軒, 중국)와 베들북에서 출간한 '북경이야기' 시리즈 『우리는 바다를 보러 간다』, 『아버지의 꽃은 지고 나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다』(린하이인 林海音, 대만)의 국내 출판을 시작점으로 중국, 대만의 현대 아동청소년 소설 작품 번역이 본격화 되었다(출처, 강경이, 2015. 최근 15년(2001~2015)간 중국어권 아동소설의 한국 출판시장 내 수용 양상 고찰, 『동화와번역』 제30집, 15-16.).

을 일상생활에서의 이야기로 전개하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영어학습 관련 도서 『노빈손의 영어일기 시리즈』(하명옥 외 2008a: 2008b)는 ‘한 줄 쓰기’, ‘세 줄 쓰기’의 단계별 시리즈로 동사의 활용, 다양한 영어 표현법, 일상생활에서의 표현 등 영어일기 쓰기를 통한 영어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어 학습서이다. 비영어권 어린이들의 공통적인 영어 학습 향상을 위한 관련 도서의 수요에 따른 것으로 한국과 중국이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들의 생활 속 예절 등과 관련한 인성동화 『첫단추생활 시리즈』(김세실 2009a: 2009b)는 일상생활에서 세수, 양치질, 편식하지 않기 등 바른 습관을 익히기 위한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친구, 선생님 등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 등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한 ‘유치원생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 ‘토이북 시리즈’(삼성출판사), ‘붙여도 붙여도 스티커북 시리즈’(삼성출판사), ‘우드블록 시리즈’(삼성출판사) 등 놀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인지발달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토이북 시리즈가 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으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교육 소비의 증가로 학습 중심의 독서와 지식정보의 매체로서의 도서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어린이를 위한 도서는 놀이와 창의성 발달을 지원하면서도 재미를 강조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출판시장에서 2위(2014년)를 기록한 중국을 공략하기 위하여서는 어린이도서의 분야가 더 다양화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어린이소설분야에서도 개인의 정서

적 측면의 접근보다 애국, 공동체, 사회과학 등의 이념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민경록 2017). 현재 중국 최고 영예의 문학대상 중 하나로 꼽히는 ‘전국우수아동문학상’의 심사조례에 의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주의, 덩샤오핑 등 3대 이론의 주요 사상과 과학발전관을 기본으로 국가의 정통 이데올로기를 예술적인 문학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송연옥 2015)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어린이문학을 통하여 사상성의 제시는 물론 문화적·미적 함양 뿐 아니라 애국주의, 공동체주의, 사회주의 사상과 핵심 가치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어린이문학을 통하여 중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전수하기 위한 노력일 것으로, 중국에서 훌륭한 어린이도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여타의 국가들과 다른 성향을 내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린이들에게 한국의 어린이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서평과 같은 이차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어린이문학관에 적합한 형식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어린이 문학작품 『솔이의 추석 이야기』(이억배 1995)가 중국에 소개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솔이의 추석 이야기』는 한국의 전통 명절 문화를 한국적 정서가 강한 화풍의 그림으로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문화 그림책은 다른 문화권의 어린이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것은 물론 한국의 어린이들에게도 자국의 문화사를 이해하는데 훌륭한 독서자료가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문화를 전하고 있는 또 다른 전통문화 그림책으로 『우리 가족입니다』(이혜란

2005)가 있다. 『우리 가족입니다』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살뜰히 살피는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린이가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과정을 소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솔이의 추석 이야기』가 추석이라는 명절 문화와 관련하여 가족과 이웃 간의 정 등 우리의 미풍양속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다면, 이 그림책은 현대 사회의 가정에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생활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외에 중국에 수출되는 어린이도서 중 픽션류는 『고양이 학교』(김진경 2001), 『고양이에게 말 걸기』(조미자 2003), 『말썰꾸러기 또또』(한병호 2001), 『그림자는 내 친구』(이수지 2008), 『노란 우산』(류재수 2007) 등의 판타지, 창작동화 및 그림책 등이 있다. 이 중 『고양이 학교』, 『노란우산』, 『솔이의 추석 이야기』는 2개국 이상에 수출이 되었다.²¹⁾

김진경 작가의 판타지 장편동화 『고양이 학교』는 프랑스 서점 관계자들이 제정한 제17회 ‘앵코뤼틸블 상(Le pris des incorruptibles)’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프랑스 서점 관계자들이 제정한 것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직접 뽑는다. 해마다 프랑스에서 출간된 자국 및 외국 아동·청소년 작품을 후보로 선정한 뒤 독자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다. 『고양이 학교』는 마법의 힘을 가진 고양이들이 현실 공간과 초현실 공간을 넘나들며 파괴된 자연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그린 모험 판타지 동화로, 선정 과정에서 “극적 긴장감과 유머, 마법이 잘 어우러진 작품”(한겨레 2006)이라는 평을 받았다. 국내 어린이독자들

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얻은 작품이다.

『노란우산』은 비오는 날의 학교 등굣길의 모습을 어린이들이 아닌 노란 우산을 따라 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색깔의 우산들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글이 없이 그림만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피아노 곡이 수록된 CD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시각과 청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림책이다. ‘우산’이라는 보편적인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어린이들이 각자의 경험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상상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림책이다.

『고양이에게 말 걸기』(조미자 2003), 『말썰꾸러기 또또』(한병호 2001), 『그림자는 내 친구』(이수지 2008) 등은 어린이들의 놀랍고 즐거운 상상놀이를 다루고 있는 그림책이다. 특별한 공간이 아닌 일상적인 공간,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안이나 주변의 사물들을 활용하여 돌발적으로 신비로운 상상 놀이의 세계로 빠져드는 어린이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다루고 있다. 마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처럼 느껴지며 정적인 그림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리듬감 있게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놀이 이야기를 그림자, 동물 등을 매개로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권의 어린이 독자들이 거부감없이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목록과 비교하면 4종의 도서(『그림자는 내 친구』, 『나 너 좋아해』(신순재 2001), 『씨앗은 무엇이 되고 싶을까』(김

21) 『고양이 학교』(중국, 일본, 프랑스, 대만, 베트남), 『노란우산』(중국, 일본, 미국, 벨기에), 『솔이의 추석 이야기』(중국, 일본, 프랑스, 대만, 미국, 스위스) 등에 수출.

순한 2001), 『우리 몸의 구멍』(허은미 2008)) 등이 중복되고 있어, 그림책 중에서도 과학분야의 지식정보도서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들의 독서는 독서습관의 정착을 위한 목적과 학습의 효율을 증대시키려는 학습독서라는 측면에서 ‘독서를 학습’하는 것과 ‘학습하기 위한 독서’의 두 가지 측면이 고려(민경록 2013)되어야 하는 시기로 논픽션류의 독서자료라도 재미와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도서를 소개하여야 할 것이다.

4.2 일본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 어린이도서의 저작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6건으로 매해 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²²⁾ 반면에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되어지는 일본의 어린이도서는 15%로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어린이도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56개 나라와 지역에서 번역되어 출판되고 있으며, 같은 도서관의 소장도서를 토대로 한 순위에서는 한국(2,177건)이 대만(1,206건), 중국(537건) 등 여타의 지역에 비해 앞서고 있는 것(최은진 2012)으로 조사되어 위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의 어린이그림책 작가 중 고미 타로(五味太郎), 안노 미쯔마사(安野光雅) 등은 특정 국적의 문화적 특성이 묻어나지 않는 작품·화풍의 작품을 통하여 세계의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

KBBY에서 제공되는 일본에 수출되는 한국 어린이도서의 목록에 따르면 41종 45책이 수출되었으며, 그 중 픽션류가 93.3%, 논픽션류 6.7% (악보, 지식정보책)이다. 논픽션류가 높은 비율을 보이는 중국의 경우와 달리 일본은 두 개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목록 모두에서 픽션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제공하는 목록에 의하면 18책으로 모두 픽션류이며, 그 중 KBBY 목록과 중복되는 도서는 『훤훤 간다』(권정생 2003)이다.

『훤훤 간다』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한국의 정서가 담긴 그림책으로 해학적인 표정의 등장인물 묘사와 반복적인 의태어가 어우러져 어린이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잘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이야기 중간에 나오는 “훤훤 온다”, “성큼성큼 걷는다”, “기웃기웃 살핀다” 등과 같은 반복되는 단어의 사용 그리고 의태어와 의성어 등은 국적을 초월하여 어린이들의 독서에 흥미와 재미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요소일 것이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번역 소개된 한국의 그림책은 류재수의 『백두산 이야기』(일본어판: 후쿠인관서점, 1990)로, 이후 정승각의 『까막나라에서 온 삼사리』, 이억배의 『술이의 추석 이야기』·『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권윤덕의 『만희네 집』, 권정생의 『강아지 똥』, 이영경의 『아씨방 일곱 동무』(오오타케 키요미 2005) 등 한국의 문화를 잘 알 수 있고, 한국적 정서가 담긴 작품들이 꾸준히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다.²³⁾

22) 해외 도서수출의 방법에 있어서 출판사가 직접 출판을 하거나 에이전시를 통한 방법 등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23) KBBY 목록에서는 『까막나라에서 온 삼사리』,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등이 올라 있지 않다.

이는 KBBY 목록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픽션류 중 한국의 신화, 전래동화 등 민족적인 전통과 고유의 문화가 소개되어 있는 작품뿐 아니라 한국의 한글을 소개하는 작품(『기차 ㄱㅇㅇ』(박은영 1997)²⁴⁾도 있다. 여타의 작품으로는 한국의 판타지 동화(『고양이 학교』)와 지식정보 책(『누구야 누구』) 등 현대 한국의 새로운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그림책들도 비록 적지만 다양한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어처구니 이야기』(박연철 2006)와 같은 작품은 소재가 한국적일 뿐 아니라 글 텍스트에 있어서도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표현으로, 한국 옛 이야기 들려주기의 느낌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또한 한국 건축 구조물의 일부를 소재로 창작한 것으로 이러한 작품을 통하여 외국의 독자들에게 작품을 통한 한국의 건축물에도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콘텐츠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문에 한국의 전통적인 고구려 벽화 문양, 단청 문양 등을 배경으로 묘사하여 한국적 정서를 듬뿍 표현하면서도 그래픽이나 플라주 등의 현대적 미술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는 특히 한국적 정서가 깊은 어린이그림책이 중심이 되어 수출되고 있다. 한국의 전래동화나 전통적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그림책은 그림을 표현하는 기법에 있어서도 특유의 부드러운 곡선이나 해학적이고 유연한 느낌의 민화적 기법의 그림으로 시각적으로도 한국의 고유성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서양의 화법에서 느껴지는 것과 달리 전래동화 특

유의 해학적인 내용을 능청맞고 익살맞게 표현하기도 하는 민화의 특성은 내용과 이미지의 전달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고유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문학적 상상력이 충분한 작품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연계한 문화콘텐츠 생성 등을 통하여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의 그림책 작가 '고미 타로' 등과 같이 그림, 내용, 등장 캐릭터 등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작품의 창작도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4.3 프랑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문학상을 수여하는 나라로 꼽히는 프랑스는 획일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지양하고 개성이 강한 다양한 성향의 독자를 아우를 수 있는 작품들이 출간되고 있다. 어린이 도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2007년 프랑스에서 한 해 동안 출간된 어린이청소년 도서는 8천 종 이상이며, 주제에 있어서도 다루지 않는 주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남윤지 2012). 이는 획일적인 기준을 해체하고 개성이 뚜렷한 작품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품들에 문학상을 수여함으로써 독자들의 문학적 성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독려하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문학상 중에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하기도 하는 등 프랑스 문학의 보편성을

24) 『기차 ㄱㅇㅇ』은 일본에 소개된 최초의 한글 그림책으로, 한글과 일본어를 함께 쓰면서 '처음 만나는 한글 그림책'이라는 부제가 붙었다(오오타케 키요미 2005, 203).

확장시키고 있다. 프랑스 문학은 이러한 사회환경적 기반위에서 경계를 확장시키며 다양한 문학적 시도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한국 어린이도서에서 보이는 관심은 한국 어린이문학의 발전과 다양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 수출되어 소개되는 한국의 어린이도서 저작권의 수출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폴란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 영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국내에 소개되어 지는 유럽권의 어린이도서 현황은 영국이 프랑스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KBBY의 목록에 의하면 프랑스에 총 31종의 한국 어린이도서가 수출되고 있으며, 이중 픽션류가 100%(31종)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상황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며, 일본과는 유사한 현상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적 정서가 강한 작품이 높은 분포율을 보였던 것과 달리 프랑스는 판타지, 창작 그림책 등의 비율이 높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목록과 중복되는 도서는 『고양이 학교』, 『마지막 박쥐공주 미가야』(이경혜 2000), 『산에 가자』(한병호 2003), 『우리 집에는 괴물이 우글우글』(홍인순 2005) 등 4종이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나 전래동화와 같이 한국적 정서가 녹아있는 작품으로는 『구렁덩덩 새 선비』(이경혜 2007), 『동강의 아이들』(김재홍 2000), 『마지막 박쥐공주 미가야』, 『만희네 집』(권윤덕 1995), 『바리공주』(김승희 2006), 『세상을 담은 그림, 지도』(최숙희 2004), 『술이의 추석이야기』, 『아씨방 일곱 동무』 등이 있다. 『구렁덩덩 새 선비』는 전래 이야기에 사임당의 조충도, 미인도 등의 화풍을 응용하여 한국 회화의 독특한 표현으로 서양의 회화풍과 다른 시각적

이미지로도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는 작품이다. 『바리공주』, 『아씨방 일곱 동무』 등은 한국의 신화적 구조의 이야기와 한국의 생활문화에 기반을 둔 이야기로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데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이다. 『만희네 집』은 3대가 함께 사는 집 구석구석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가족이나 주거문화 등을 알 수 있다. 『동강의 아이들』은 한국의 판타지 동화 중 프랑스의 '앵코뤼티블 상'을 수상한 『고양이 학교』에 그림을 그린 김재홍 작가가 글과 그림을 모두 작업한 작품으로, 어린 남매의 풍부한 상상놀이와 함께 한국인의 정서와 풍경을 수채풍의 그림으로 무겁지 않게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 박쥐공주 미가야』는 한국에만 서식한다는 토끼박쥐를 주인공으로 풀어낸 것으로, 동물들의 생태까지도 전하고 있다. 특히 동물을 캐릭터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 사람과 달리 인종, 종교 등의 문제로 부터 자유로워 다양한 문화권의 어린이들에게도 친숙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집에는 괴물이 우글우글』, 『우리는 벌거숭이 화가』(문승연 2005), 『동물원』(이수지 2004), 『지하철 바다』(황은아 2005) 등은 어린이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놀이를 선명한 색채와 판타지 가득한 묘사를 통하여 마치 축제처럼 표현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벌거숭이 화가』는 목욕을 하다가 시작된 물놀이는 어느덧 시공간을 확장하며 판타지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현실과 판타지의 세계를 넘나든다. 멋진 색감과 아이들의 즐겁고 흥에 겨운 표정은 마치 Sendak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 Burnigham의 『셜리야, 목욕은 이제 그만』과 같은 즐거움을 준다. 이러한 작품들은 한국 그림책의 장르의 다양성

을 엿볼 수 있다.

상술한 것 외의 여타의 작품들 중에는 어린이청소년문학에서 다루기를 꺼려하거나 조심스럽게 여기고 있는 죽음, 장애 등으로 테마를 확장하고 있는 작품들로, 「내 말 좀 들어 주세요」(윤영선 2007)는 감정 표현이 서툰 아이들의 마음을 동물 이미지로 전하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문제가 있는 관심의 대상으로 보여지는 외톨이, 심술꾸러기, 응석받이, 울보, 싸움꾼 등의 가슴 깊이 있는 감정을 단순한 문장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단지 아이들만이 아닌 어른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으로, 그림책이라 하지만 독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으로 독자층을 확대할 수 있는 작품일 것이다.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하여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면 친구, 이성, 성적, 죽음 등에 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이경혜 2004)는 중학생이 친구의 죽음을 통하여 삶과 죽음에 관한 고민을 청소년기의 눈높이에서 풀어내고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의 나라 '프랑스'는 장르, 주제,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린이도서가 수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프랑스 어린이들에게 사회가 제공하는 독서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서관이나 학교 등 독서현장에서의 독서지도에 있어서도 어린이들에게 지나치게 학습과 성적 등과 같은 학습적 독서만을 강조하지 말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열린 사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독서 콘텐츠로의 확대의 필요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상술한 3개국에 수출되는 어린이도서 중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어린이도서는 일본, 프랑스 2개국에 수출되는 「동강의 아이들」, 「만희네 집」,

「아기너구리네 봄맞이」, 「산에 가자」, 「아씨방 일곱동무」 등이 있으며, 일본과 중국에 공통으로 수출되는 어린이도서는 「노란 우산」이 있다.

중국, 일본, 프랑스 등의 3개국에 공통적으로 수출되고 있는 어린이도서는 「고양이 학교」, 「솔이의 추석이야기」 등 2종이 있다. 전자는 판타지 장르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판타지 특유의 환상성으로 풀어내고 있다. 또한 등장 캐릭터가 동물이다 보니 특정 인종, 종교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세계적인 보편성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소재를 판타지로 풀어냄으로써 세계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후자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전하고 있는 창작 그림책으로, '추석'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옛 것을 소중히 여기고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가족이 함께하는 정서적 교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전통 복식, 식문화, 가을 들녘의 풍경 등은 한국의 어린이들에게도 사라져가는 우리의 문화를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두 작품은 기타 스위스, 미국, 대만 등에도 수출되고 있는 작품이다.

이처럼 3개국에 소개되고 있는 한국의 어린이문학도서에서는 '한국 다움'과 '보편성' 그리고 '창작성'의 작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한국 전통 문화를 다루는 작품의 비중이 높고, 프랑스는 판타지류와 다양한 주제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더 폭넓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어린이들의 독서시기에는 문학 장치를 활용

하여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특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등의 독서 현장에서는 어린이들이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이러한 도서에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문화콘텐츠산업 중 출판 산업의 매출액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어린이도서의 저작권 수출은 2012년 약간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도서의 해외 수출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동양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중국과 일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64.4%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논픽션류의 비중이 높고 픽션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에 일본은 픽션류의 비율이 높고, 한국적 정서가 짙게 배어있는 전통 문화그림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서양권에서는 어린이도서의 출판이 활발하고, 개성이 뚜렷한 작품으로 어린이문학의 경계를 확장시키며 다양한 문학적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일본과 유사하게 한국적 정서가 강한 작품과 더불어 판타지와 창작 그림책 그리고 어린이청소년문학에서의 접근이 조심스러운 장르, 주제, 소재 등의 다양한 어린이도서가 소개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어린이도서가 중국, 일본, 프랑스에 수출되고 있는 현황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한국 어린이그림책의 특성과 이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로의 확대 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출판 산업의 해외 수출에 있어서 어린이도서가 5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만

화, 문학, 학습참고서 등 여타의 출판 분야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어린이도서 분야의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계에서는 세계 어린이도서출판 시장의 경향과 한국 어린이문학의 특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어린이독서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에 번역되어 소개되어지는 해외의 어린이도서는 영미권이 45%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에 수출에 있어서는 아시아권 97.3%, 유럽 2.7%(2013~2015)로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어린이도서 콘텐츠의 다양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권은 지역적·문화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형태를 많이 보이면서 그것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질감이 덜할 것이다. 유럽은 수량적으로는 미진한 편이지만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다종의 도서를 수출하고 있으므로, 독서를 통한 상상력과 창의력의 확대 그리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서는 더 보편적이고 다양한 장르, 테마 등을 다룬 어린이도서를 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향후에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여러 나라의 문화를 간접적이거나 접할 수 있도록 여타 국가의 도서를 소개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림책 읽기에 있어서는 어린이가 독서 대상도서를 직접 선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육자가 선택하여 읽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도서관 현장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세계의 어린이그림책을 소개하는 기회도 꾸준히 가져야 할 것이다. 즉 도서관과 사서들은 작가와의 교류 등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독서 커뮤니티

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어린이도서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중국은 어린이 교육과 관련된 지식정보책(학습만화, 스티커북 등), 놀이북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대만도 논픽션과 학습용의 어린이 도서가 중심을 이룬다. 중국과 대만은 한국과 유사하게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매우 높은 국가들로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지식정보책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야기 전개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익숙하고 보편적인 주제를 바라보는 각도의 새로운 접근으로 문학과 과학이 융합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 융합을 강조하는 현대의 독서계에서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아시아 출판시장에서 이러한 작품에 관한 선호가 높은 만큼 논픽션류의 어린이도서는 지식정보와 창의성 발달을 지원하면서도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내용뿐 아니라 형태적 측면에서도 더욱 다양화되고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반면에 일본이나 여타의 서양권에서는 판타지, 창작, 그림책, 청소년도서 등 테마, 소재, 대상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지역의 어린이도서 출판시장은 이미 성인의 장르와 경계를 넘나들며 어린이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테마를 사실, 판타지 등의 문학적 기술로 전하고 있다. 이에 『마지막 박쥐공주 미가야』는 한국의 신화, 전설, 설화 등 한국적인 정서와 전통적인 문화가 스며있는 독특한 소재를 판타지, 추리물 등 독자들의 독서요구를 반영한 문학 장치를 기반으로 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고미 타로(五味太郎), 안노 미즈마사(安野光雅) 등과 같이 특정 국적의

문화적 특성이 묻어나지 않는 작품·회풍의 작품을 통하여 세계의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작품도 적극 권장할 만하다. 획일화된 방법과 내용의 도서 콘텐츠가 아닌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의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문학작품을 원전으로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재창작하여 세계적으로 한국 어린이문학의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독창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소재의 문학작품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 일본, 프랑스 등에 수출되는 어린이도서의 공통적인 사항 중 한국적인 소재의 도서가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권문희 작가의 『줄줄이 펜 호랑이』처럼 애니메이션으로 재창작되어 세계에 한국 어린이문학의 우수성과 한국의 문화상품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문학이 세계 어린이들간의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어린이도서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우수한 콘텐츠이다. 이에 한국의 전통문화나 민족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녹아든 작품 등을 표현 방법의 다양성, 서술의 독창성, 장르의 확장 등으로 표현한 작품들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적극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 현장에서는 어린이들이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독서지원서비스 등에 반영하고, 세계 출판 시장에서 주목받는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의 소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훌륭한 어린이도서를 기반으로 독서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서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매체의 출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이다.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
 아지면서 세계 독자들의 요구를 고려하고 그림
 책뿐 아니라 다양한 어린이도서가 해외에 소개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번역 출
 간된 한국 어린이도서의 목록을 찾고자 하였으

나, 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한 기관을
 찾지 못하였다. 또한, 해외에 도서 저작권을 수
 출하는 방법이 직간접적으로 매우 다양하여 정
 확한 목록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향후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의 연구가 그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참 고 문 헌

- [1] 강경이. 2015. 최근 15년(2001~2015)간 중국어권 아동소설의 한국 출판시장 내 수용 양상 교차. 『동화와 번역』, 30: 15-42.
- [2] '고양이 학교' 프랑스 어린이문학상 수상. 2006. 『한겨레』, 6월 11일. [online] [cited 2017. 9. 22.] <<http://v.media.daum.net/v/20060611210606241?f=o>>
- [3] 국제아동청소년협의회(KBBY). 한국아동청소년도서수출현황. [online] [cited 2017. 6. 29.] <http://www.kbby.org/bbs/board.php?bo_table=project03>
- [4] 권문희. 2005. 『줄줄이 펜 호랑이』. 파주: 사계절.
- [5] 권운덕. 1995. 『만희네 집』. 파주: 길벗어린이.
- [6] 권정생. 2003. 『훨훨 간다』. 서울: 국민서관.
- [7] 김세실. 2009a. 『보리와 누리의 우당탕탕 하루』. 서울: 뜨인돌어린이.
- [8] 김세실. 2009b. 『보리의 시끌벅적 유치원』. 서울: 뜨인돌어린이.
- [9] 김승희. 2006. 『바리공주』. 서울: 비룡소.
- [10] 김재홍. 2000. 『동강의 아이들』. 파주: 길벗어린이.
- [11] 김진경. 2001. 『고양이 학교』. 서울: 문학동네어린이.
- [12] 남윤지. 2012. 프랑스 아동청소년문학의 경계 확장. 『창비어린이』, 10(2): 143-155.
- [13] 대한출판문화협회. 2017. 『2016 출판통계』. [online] [cited 2017. 6. 19.] <http://member.sibf.or.kr/kpa_bbs/2015%eb%85%84-%ec%b6%9c%ed%8c%90%ed%86%b5%ea%b3%84/>
- [14] 류재수. 2007. 『노란우산』. 서울: 재미마주.
- [15] 문승연. 2005. 『우리는 별거숭이 화가』. 파주: 돌베개어린이.

- [16]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년 우리 국민의 연평균 독서율』. [online] [cited 2017. 7. 10.]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4885>
- [1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산업진흥원 편. 2017.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18] 민경록. 2013. 어린이도서의 서평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55: 491-523.
- [19] 민경록. 2017. 『어린이그림책 서평의 이해: 어린이그림책 선택 및 이용을 위한 안내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20] 박연철. 2006. 『어처구니 이야기』. 서울: 비룡소.
- [21] 박은영. 1997. 『기차 ㄱㄴㄷ』. 서울: 비룡소.
- [22] 방방곡곡 '그림책 문화활동'이 뜬다. 2015. 『노컷뉴스』. 3월 12일. [online] [cited 2017. 10. 7.] <<http://www.nocutnews.co.kr/news/4381049>>
- [23] 송연옥. 2015. 중국의 아동문학상 연구: '전국우수아동문학상(全國優秀兒童文學獎)'을 중심으로. 『中國文化研究』, 27: 391-410.
- [24] 신동경. 2011. 『물은 어디서 왔을까?』. 파주: 길벗어린이.
- [25] '엄마를 잠깐 잃어버렸어요'. 2009. 『연합뉴스』. 2월 19일. [online] [cited 2017. 10. 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2/19/0200000000AKR20090219106300005.HTML?did=1179m>>
- [26] 윤영선. 2007. 『내 말 좀 들어 주세요』. 파주: 문학동네.
- [27] 이경혜. 2007. 『구렁덩덩 새 선비』. 서울: 보림.
- [28] 이경혜. 2000. 『마지막 박쥐공주 미가야』. 서울: 문학과지성사.
- [29] 이경혜. 2004.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서울: 바람의아이들.
- [30] 이수지. 2004. 『동물원』. 서울: 비룡소.
- [31] 이수지. 2008. 『그림자는 내 친구』. 파주: 길벗어린이.
- [32] 이억배. 1995. 『술이의 추석이야기』. 파주: 길벗어린이.
- [33] 이영경. 1998. 『아씨방 일곱동무』. 서울: 비룡소.
- [34] 이혜란. 2005. 『우리 가족입니다』. 파주: 보림.
- [35] 장영미. 2012. 한국 아동문학의 해외 번역 현황과 특성 연구. 『돈암어문학』, 25: 37-74.
- [36] 조미자. 2003. 『고양이에게 말 걸기』. 서울: 비룡소.
- [37] 하명옥 외. 2008a. 『노빈손의 세 줄 영어일기』. 서울: 뜨인돌어린이.
- [38] 하명옥 외. 2008b. 『노빈손의 한 줄 영어일기』. 서울: 뜨인돌어린이.
- [3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편. 2016. 『2015 출판산업 실태조사』. 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40] 한병호. 2001. 『말썹꾸러기 또또』. 서울: 길벗어린이.
- [41] 홍인순. 2005. 『우리 집에는 괴물이 우글우글』. 파주: 보림출판사.

- [42] 황은아. 2005. 『지하철바다』. 서울: 마루벌.
- [43] Houghton, C. 2009. *A Bit Lost*. 김상미 옮김. 2009. 『엄마를 잠깐 잃어버렸어요』. 파주: 보림.
- [44] 大竹聖美. 2005. 일본에 소개된 한국의 그림책: 한국의 그림책 10선을 중심으로. 『동화와번역』, 9: 195-225.
- [45] 成實朋. 2012. *Translation of Japanese Children's Books in East Asia (2001-2011)*. 최은진 옮김. 2012. 동아시아에서 일본 아동도서의 번역에 대하여(2001년~2011년). 『아동문학평론』, 37(3): 36-4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Gyeong-I. 2015. "A Review of the Reception of Children's Books in Chinese in the Korean Publication Market over the Last 15 Years (2001-2015)." *Folktale and Translation*, 30: 15-42.
- [2] "'Goyang-i haggyo' Peulangseu Eolin-imunhagsang Susang.." 2006. *hankyoreh*. June 11. [online] [cited 2017. 9. 22.] <<http://v.media.daum.net/v/20060611210606241?f=o>>
- [3] Korean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KBBY),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Juvenile's Books Export*. [online] [cited 2017. 6. 29.] <http://www.kbby.org/bbs/board.php?bo_table=project03>
- [4] Kwon, Moon Hee. 2005. *A String of Tigers*. Paju: sakyejul.
- [5] Kwon, Yoon Duk. 1995. *Manhee's*. Paju: Gilbutkid.
- [6] Kwon, Jeong Saeng. 2003. *Flap flap*. Seoul: Koryo Press.
- [7] Kim, Sae Sil. 2009a. *Bori and Nuri's a lively day*. Seoul: Ddstone.
- [8] Kim, Sae Sil. 2009b. *Bori's lively kindergarten*. Seoul: Ddstone.
- [9] Kim, Seung Hee. 2006. *Princess Bari*. Seoul: Birongso.
- [10] Kim, Jae Hong. 2000. *Children of the Dong River*. Paju: Gilbutkid.
- [11] Kim, Jin Kyung. 2001. *Cat School*. Paju: Munhakdongne.
- [12] Nam, Yun Ji. 2012. "Widening of the Boundary of French Children's and Juvenile's Literature." *Changbi Children*, 10(2): 143-155.
- [13]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2017. *2016 Publication Statistics*. [online] [cited 2017. 6. 19.] <http://member.sibf.or.kr/kpa_bbs/2015%eb%85%84-%ec%b6%9c%ed%8c%90%ed%86%b5%ea%b3%84/>
- [14] Liu, Jae Soo. 2007. *Yellow Umbrella*. Seoul: jaimimage.

- [15] Moon, Seung Yeon. 2005. *We Are Naked Painters*. Paju: dolbegae.
- [16]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6. "Average Number of Books Read by Koreans in 2015." [online] [cited 2017. 7. 10.]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4885>
- [1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17. *2016 Content Start-Up Statistics*.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18] Min, Kyeong Rok. 2013. "A Study on the Book Reviewing Children's Books: Approach to Perspective in Reading Education."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55: 491-523.
- [19] Min, Kyeong Rok. 2017. *The Comprehension fo the Review of Children's Picture Book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20] Park, Yeon Chul. 2006. *An Eocheoguni Story*. Seoul: Birongso.
- [21] Park, Eun Young. 1997. *Train ㄱㄴㄷ*. Seoul: Birongso.
- [22] "Bangbang-goggog 'Geulimchaeg Munhwahwaldong'i tteunda. 2015. *Nocutnews*. Mar 12. [online] [cited 2017. 10. 7.] <<http://www.nocutnews.co.kr/news/4381049>>
- [23] Song, Yun Ok. 2015. "A Study of Chinese Children Literature Awards: Focusing on the National Excellent Children's Literature Award." *The Journal of Chinese Cultural Research*, 27: 391-410.
- [24] Shin, Dong Kyeung. 2011. *Where Does Water Come From?*. Paju: Gilbutkid.
- [25] "'Eommaleul Jamkkan Ilh-eobeolyeoss-eoyo'.." 2009. *Yonhapnews*, Jan 19. [online] [cited 2017. 10. 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2/19/0200000000AKR20090219106300005.HTML?did=1179m>>
- [26] Yoon, Young Sun. 2007. *Will You Please Listen to My Story*. Paju: Munhakdongne.
- [27] Lee, Gyeong Hye. 2007. *A Serpent and a Scholar*. Seoul: Borim.
- [28] Lee, Gyeong Hye. 2000. *Migaya the Last Bat Princess*. Seoul: Moonji.
- [29] Lee, Gyeong Hye. 2004. *One Day I Died*. Seoul: barambooks.
- [30] Lee, Su Zy. 2004. *The Zoo*. Seoul: Birongso.
- [31] Lee, Su Zy. 2008. *The Shadow Is My Friend*. Paju: Guibutkid.
- [32] Lee, Uk Bae. 1995. *Sori's Harvest Moon Day*. Paju: Gilbutkid.
- [33] Lee, Young Kyoung. 1998. *The Seven Friends in a Lady's Chamber*. Seoul: Birongso.
- [34] Lee, Hae Ran. 2005. *We Are A Family*. Paju: Borim.
- [35] Jang, Yeong Mi. 2012.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and their Characteristics." *The Donam Language & Literature*, 25: 37-74.

- [36] Jo, Mi Ja. 2003. *Talk To The Cat*. Seoul: Birongso.
- [37] Ha, Myeong Ok et al. 2008a. *Ronbinson's Three Line English Diary*. Seoul: Ddstone.
- [38] Ha, Myeong Ok et al. 2008b. *Ronbinson's One Line English Diary*. Seoul: Ddstone.
- [39]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16. *2015 Publication Industry Survey*. Jeonju: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 [40] Han, Byung Ho. 2001. *Naughty, ToTo* . Seoul: Gilbutkid.
- [41] Hong, In Soon. 2005. *There Are Enormous Monsters In My House*. Paju: Borim.
- [42] Hwang, Eun Ah. 2005. *Subway To The Ocean*. Seoul: Marubul.
- [43] Houghton, Chris. 2009. *A Bit Lost*. Translated by Kim, Sang Mi. Paju: Borim Press.

